생활양식과 한국정치:
문화정치학의 소론*

홍 성 민 | 동아대학교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보수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학계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일인 일표제가 달성되었고, 지방자치 선거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 정당과 정부의 고위직 임명이 보다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1987년 이전과 비교하면 이러한 정치적 현상은 분명 민주화에 한발 더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점차 퇴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정치가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현대 한국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한국정치비젼을 찾아내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한국정치의 보수화를 설명하는 학계의 흐름을 과감히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적 접근방법이고, 둘째는 심리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이 각각 구조와 미시를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적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생활양식"(lifestyle)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치학의 이론은 '제도'와 '개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그 영역을 "생활양식"이라고 이름붙이고 싶다. 그런데 생활양식의 영역은 다시 소비취향과 언어화 과정으로 분리될 수 있다.

생활양식을 연구하는 방법은 질적인 방법과 경험적인 방법이 있다. 전자는 주로 소비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하는 방법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설문지를 통한 통계적인 방법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여 경험적인 연구를 실시해 보았다. 다시 말해 부산시민들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의 영역과 개인의 심리영역을 매개하는 생활양식의 기능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정치보수화, 생활양식, 소비–취향, 언어화, 문화정치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보수화에 대한 두 시각: 문화정치학의 필요성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보수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학계의 공감을 얻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여 법적인 절차는 분명 보완되고 발전되었는데, 실질적인 민주정치의 모습은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는 관건이며,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할 때 비로소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치적 비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정치의 보수화를 설명하는 학계의 흐름을 과감히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적 접근방법이고, 둘째는 심리적인 접근방법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학자는 최장집 교수를 꼽을 수 있다.[1] 최장집(2002; 2006; 2010)은 현대 한국 민주주의 특성을 보수화라고 규정하면서 대중적 기반이 없는 엘리트 과두체제의 정당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로는 김태형(2010)의 시도를 꼽을 수 있다.[2] 그는 중산층을 예로 들면서 개인들은 자신의 준거집단을 계급적 정체성에서 찾기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통해서 규정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이럴 때 대부분의 대중들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삶의 기준이 점차 중산층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면 그들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바로 여기서 계급배반 투표, 즉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나는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적 태도가 한국정치의 보수화를 설명하는 데 모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일면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비판하고 싶다. 예컨대 최장집의 의견대로 한국의 정당구조가 아직 완벽하지 못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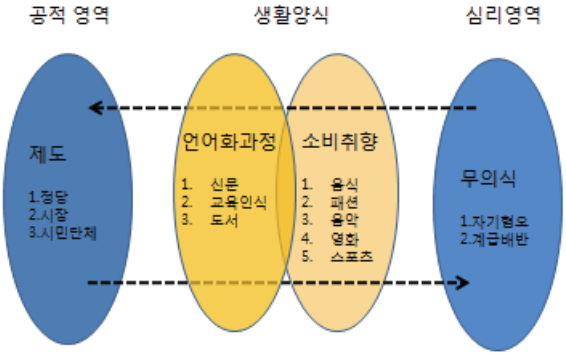
---

1) 제도적 접근법이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정복(2009), 임혁백(1998), 박은홍(2000), 조희연(1998), 헤가드와 카우프만(Haggard and Kaufman 1992) 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필자는 최장집의 연구 작업이 기존의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심리적 접근방법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을 내적동기의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이론적 흐름이다. 다울링(Dowling 2000), 백상창(1999), 최봉영(2000), 황상민(2005; 2011) 등이 있다. 필자는 김태형의 연구가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개인의 내적 동기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현실의 한국정치를 정면으로 분석하고 있고, 기존의 연구 작업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었다.

권위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호를 모두 반영할 수 없고,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책과 정당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여기에서 최장집은 개인들의 선호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개인들의 정치적 태도가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하층 계급 중에서 최소한 절반이라도 진보정당에 표를 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 보수여당과 대표적인 야당 말고도 군소정당들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들도 새로운 정책적 공약을 개발하고 선거시기에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해 왔다. 그러나 진보정당을 포함해 이러한 군소정당이 얻는 득표수는 실로 미미하다. 민주노동당이 처음 창당했던 1990년대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권영길 후보가 7%까지 득표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2008년 대선에서는 3%, 2012년 대선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1%에 머물고 말았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에서 조차 진보정당에 표를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최장집의 이론 틀에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이론적 딜레마는 최장집의 입장이 지나치게 제도주의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비판하자면, 한국정치연구자들의 주류들 중에는 민주정치를 국가, 정당, 시민단체에 집중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정치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김태형의 이론적 입장도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하층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혐오의 무의식 상태가 정치적으로 계급배반 투표로 나타난다고 할 때,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보수정권에 투쟁하는 사례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기혐오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급적 정체성의 혼란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학문적 혜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떤 기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자기혐오의 단계로 이어지는가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구나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학이란 사회적 구조와 연관 지어 개인들의 심리상태를 설명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때에도 사회경제적 구조와 개인의 정체성의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이 분명히 드러나야만 심리학이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태형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사회과학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그림 1〉 생활양식과 정치

II. 생활양식: 취향과 언어화

위와 같은 두 가지 이론적 입장의 성과를 계승하면서,[3] 동시에 학문적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생활양식"(lifestyle)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반화일 수 있지만, 최장집의 이론이 공적영역(제도)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면, 김태형의 이론은 심리영역(미시적 개인)에 한정되어 있다고 필자는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개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과정이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며, 그 영역을 "생활양식"이라고 이름붙이고 싶다. 그 대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생활양식이란 베버의 종교사회학에서 유래하는 개념이다. 그에 대한 개념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김정로 2008), 여기서 나는 이것을 사회구조와 개인의 심리상태를

3) 최장집의 입장은 쉐보르스키(Przeworski)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을 일종의 시민사회론의 한 유형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쉐보르스키의 저작(Przeworski 1999; 2010)을 보면 국가와 시장, 국가와 경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에 유행했던 시민사회론의 문제의식과 매우 흡사하다. 한편 김태형의 입장은 사회현상을 개인의 미시적 특징으로부터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론의 전형적인 예로는 킨(Keane 1998), 코헨과 아라토(Cohen and Arato 1992)를 들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특성을 연구한 서적으로는 암스트롱(Amstrong 2002)을 들 수 있다. 개인주의의 전형적인 예로는 벨라(Bella 2001)이며,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관점을 연구한 서적은 송호근(2006)이 있다.

연결하는 중간영역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적 비유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생활양식은 그동안 소비사회론에서 많이 이용한 개념이며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 베블린(Veblen 1934)과 부르디외(Bourdieu 1979)를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소비사회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Edwards 2000; Martin 2003; Postrel 2003), 특히 정치적 가치관과 개인의 정체성의 상호관계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Trend 2001; Western 2007; Canclini 2001).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공공영역과 일상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던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학문적 탈출구를 모색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서구의 오락문화산업이 제3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 이를테면 주변부 국가의 문화적 종속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미디어(방송, 인터넷)나 영상문화들이 개인들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전제하고(Tomlinson 1994; 2004), 오늘날 이러한 문화산업을 지배하는 거대기업의 사회적 피해를 고발하는데 멈추고 있다(Shiller 1989; 김현숙 2004).[4)]

---

4) 다시 말해 여전히 문화를 제도의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깡끌리니(Canclini 2001)가 분석했던 바와 같이 멕시코나 브라질과 같은 제3세계 국가에 미국의 자본이 침투하여 영화나 멀티미디어 게임시장을 장악했고, 이것이 미국식 세계화의 논리를 제3세계에 강요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상태를 구조에 환원시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자국 국민들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과정에는 문화적 계기(생활양식의 과정)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소비사회학이나 문화연구의 한계점은 소비생활의 취향이 개인의 정치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 점에 있다. 일반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선택한 소비행위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동안 상품화과정(commodification)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행위나 여가활동이 사람들을 자본주의 인간형으로 길들이는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한다면, 개인들의 주체형성과정에 개입하는 중요한 매개변수가 설명되지 않은 채 빠져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마르크시즘의 분석틀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 대중들이 자본주의 구조적 영향을 받게 되는 순간에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문화적 매개변수가 반드시 작동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자본의 지배에 의해서 조정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저항문화가 곧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들이 문화적으로 지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항의 문화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의 주장은 자본의 지배가 물질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되지만, 그것이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과정에는 문화적 과정이 중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가 보기에 기존의 문화이론(소비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자본(의 권력)”과 “개인의 지배”라는 단어는 한국정치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자가 동원했던 “제도(의 권력)”와 “개인(의 심리상태)”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한국정치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치학자들이 동원했던 제도/심리라는 이항대립이 문화적 지배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화 사회학자들이 동원했던 자본/개인이라는 이항대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이항대립을 극복하는 길은 두 요인들을 서로 매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길뿐이다. 소비사회학의 이론가들은 주로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산업이 개인의 정체성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데(Steinert 2003),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의 메시지가 개인에게 전달되어 내면화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문화산업론은 문화의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개인의 심성을 지배하는 계기 즉 외면적 요인의 내면화(interiorisation of external factor)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권력에 종속당하는 주체화과정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생활양식을 두 영역으로 다시 세분화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소비취향의 영역이며 둘째는 언어화의 영역이다. 언어화 영역이 필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적 지배가 개인의 심리 안으로 파고들어 가는 계기가 바로 언어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5] 이렇게 되면 심리적 개인과 공공영역(정치제도)은 생활양식이란 매개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상호관계가 밝혀 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언어화의 과정[6]을 주체화 양식과 연결지은 대표적인 사상가로 리꾀르

다.

5) 이것은 기존의 문화이론연구 혹은 소비사회학에서는 제대로 거론된 일이 없는 것으로, 필자의 새로운 이론적 시도이다. 문화적 지배와 언어화 과정을 분리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가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때 상징성의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언어이기 때문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일반 대중들이 정치를 접하는 최초의 계기가 바로 언어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상징이나 언어흐름에 초점을 두어 관찰함으로써 일상적인 영역으로부터 공공영역에까지 확장된 삶의 영역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가치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며 어떤 특성으로 표현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6) 언어화의 과정이라는 개념은 푸코(Foucault)『성의 역사』(1982) 1권 2장 1절 등장하는 “담론에의 선동”(incitation aux discours)에 착안하여 필자가 새롭게 고안한 것이다. 푸코는 성에 대한 담론화(mise en discours)가 17세기와 18세기를 구분하는 획기적인 사회적 장치라고 말한다. 즉 18세기 이전에는 주로 기독교서나 고해성사가 성에 대한 담론화의 기술이었다면 18세기에는 다양한 학문체계(보건학, 공중위생, 산부인과학, 아동심리학 등)가 등장하여 새로운 모습의 성에

(Ricoeur)를 꼽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은 주로 상징이나 언어적 내러티브(Narratives)에 의해서 형성된다(Ricoeur 1969; 1976; 1983; 1986; 1990). 따라서 문화산업이 동원하는 상징이나 내러티브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주체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또 리꾀르는 주체가 이야기 구조(narratives) 안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7] 이것을 문화이론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국민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데 응용해 볼 수 있다. 즉, 미메시스(Mimesis)의 첫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텍스트를 이해하는 선이해가 한국사회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사회적 맥락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둘째 단계는 사람들이 문화적 전통을 근거로 다양한 정치적 사건을 독해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치적 사건이란 텍스트와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되며,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단계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자신의 미학적 가치관을 표현하듯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해와 이해를 근거로 사회적 행위를 실현한다. 구체적인 예가 바로 투표행위이다. 이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주체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는 일정한 상징적 권력관계가 나타난다. 이

대하여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푸코가 강조하는 "담론화의 선동"은 성을 규정하는 사회조건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담론의 선동은 담론의 외부적 요인(discursive factor of exteriority) 혹은 담론의 사회적 토대(social base of discours)를 지칭하는 것이다. 한편 레이코프(Lakoff 2006)가 제안하는 프레임(frame)이라는 개념은 언어의 사회적 효과가 어떻게 개인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즉, 담론의 내면적 요인(discursive factor of interiority)을 강조한다. 그런데 필자가 고안하여 사용하는 "언어화 과정"은 자신이 주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언어가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이것은 언어의 외면적 효과와 내면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이론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단순한 언어적 복사가 아니라 창조적 모방이라고 해석하며, 그 모방의 대상을 뮈토스(Muthos: 사실의 정돈 agencement du faits)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리꾀르는 창조적 모방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가 언어적 행위의 선이해 단계로서 여기서는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시간성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둘째는 이야기의 텍스트가 구성되는 단계로서 줄거리가 만들어진다. 셋째는 행위의 재구성단계이며 이것은 사회적 실천과 관련된다.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의 행위가 의미를 달리하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미메시스의 단계에서 리꾀르가 강조하는 것은 텍스트 구성, 이해, 실천이 사회적 지시(référence) 안에서 가능해 지며, 이것이 의사소통의 기본전제라는 것이다. 리꾀르의 언어철학적 관점은 우리가 세계 안에 살면서 상황에 따른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말하고, 또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 정체성의 핵심이다[Ricouer 1990(sixième étude) 참조].

것이 바로 리꾀르의 내러티브 정체성(identité narrative)이라는 개념을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응용한 사례이다. 이처럼 내러티브와 주체의 상관관계를 정치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면, 공적 영역에서 발표되는 정당정책이나 언론의 기사들, 칼럼 등도 제도화된 법률수준에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개인들이 인식하는 언술구조(내러티브)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들이 정치를 인식하는 계기에는 반드시 언어적 (내러티브) 차원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때 비로소 개인의 심리상태와 공공영역의 상호관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상징적인 수준과 제도화된 수준은 모두 이념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즉 심리적인 자기혐오나 정당정책들의 공식적인 대립이 투쟁의 예이며, 이것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수/진보의 구분이며, 정책적인 수준에서는 신자유주의/복지국가와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심리적 투쟁과 제도적 투쟁의 관계는 언제나 생활양식의 상징적 투쟁을 통해서 매개된다는 것이다. 또 심리적 차원은 언제나 제도적 투쟁의 결과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제도적 투쟁의 결과는 언제나 심리적 투쟁의 결과가 집적되어 나타난다. 심리와 제도 사이에는 개인들이 양자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접경지역이 있으며, 이러한 매개가 있을 때 비로소 심리적 수준이 제도적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생활양식이다. 그리고 생황양식의 영역에서 개인들은 성별, 연령, 직업별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성향의 형태(혹은 아비투스 Habitus)라고 할 수 있다. 또 생활영역은 늘 가변적이어서 한 사람의 성향은 권력의 배분상태, 경제력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적 영역과 마주치는 강도가 달라진다. 또 이러한 강약의 차이에 따라서 자신의 심리상태를 공적영역으로 표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취향과 언어화의 영역은 바로 정치의식에 대한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8]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최장집과 김태형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라 수 있다.

---

8) 부르디외는 취향(Bourdieu 1979)과 언어(Borudieu 1982)를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인의 아비투스를 취향과 동일시하고 이것의 사회적 효과에 관심을 기울였다. 즉 "취향=아비투스 → 계급적 구별짓기"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또는 언어의 역할을 페티시즘의 형태로 이해하고 언어와 정치를 직접적인 상관관계로 분석했다. 즉 "언어=패티시즘 → 민주정치의 위기"라는 것이다(Bourdieu 2005).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취향/언어/정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세 가지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밝혀질 때 자본주의 인간형(자본주의적 아비투스)가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아비투스는 취향+언어화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계급과 정치영역에 관련성을 맺는다. 즉 "취향+언어 → 계급/정치"의 관계가 있다.

정치제도(정당의 구조: 최장집) - **취향과 언어화** - 정치표현(계급배반의 투표: 김태형)

III. 실증사례분석: 부산시민의 소비 취향, 언어화, 정치의식의 상관관계

필자는 위에서 전개한 이론적 내용을 실증조사해 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967명을 2010년 5월 25일에서 7월 10일까지 약 45일에 걸쳐 조사하였다.[9] 본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1) 표본추출이 대학 졸업자에게 집중되었다(70% 정도). 2) 표본추출은 부산지역 전체를 조사하기엔 많은 제약이 있어, 임의적으로 상, 중, 하층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3) 조사는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계층별로 사례수를 편의표집하고 핵심조사원을 통해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사례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1. 독립변인

설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 **음식취향**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를 고려하는가'는 1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2점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3점 '조금 고려하는 편이다'. 4점 '매우 많이 고려한다'로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패션취향**은 '패션 상품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항으로 1) 클래식하고

9) 부산지역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층별 기준은 2009년 부산시에서 조사한 『부산의 사회지표』(부산시청 2009) 중에서 가구의 생활만족도와 월평균수입을 기준으로 삼아 구별로 조사하되 동을 고려하였다. 먼저 상층지역은 주로 해운대구의 우동, 좌동, 중동 등의 해운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250부를 배포하였다. 중층지역은 금정구의 구서동, 남산동, 동래구의 사직동, 연산동, 수영구의 광안동, 민락동 등지에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하층지역으로 사하구의 다대동, 괴정동, 서구 부민동 등지에 350부를 배포하였다. 회수한 자료는 분류, 코딩, 재코딩, 편집의 과정을 거쳐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version 18.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주로 장미혜(2001)와 민주노총(2003), 부르디외(1979)의 조사지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435	45.1
	여	529	54.9
	합계	964	100.0
결혼여부	미혼	527	54.7
	기혼	403	41.8
	기타	33	3.4
	합계	963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0	4.2
	고졸	206	21.8
	대졸 이하	697	73.9
	합계	943	100.0
		943	100.0
연령별	20대	457	47.4
	30대	142	14.7
	40대	186	19.3
	50대	180	18.7
	합계	965	100.0

고급스러운 옷, 2) 유행에 뒤지지 않으면서 자기 개성에 어울리는 옷, 3) 심플하고 단정한 옷, 4) 입어서 편안한 옷, 5) 기타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는 비용에 따라 '저가비용의 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당구, 탁구, 등산 등) 1점 , '중가비용의 스포츠'(테니스, 수영, 에어로비, 조깅, 헬스, 무술, 볼링 등) 2점, '고가비용의 스포츠'(골프, 인라인스케이트,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스키 등) 3점으로 구분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고가비용의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취향은 음악과 가수, 작곡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음악과 국외음악,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하였다. 강산에의 〈라구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안치환의 〈내가 만일〉, 한대수의 〈물 좀 주소〉, 너바나(Nirvana)의 〈Smells Like Teen Sprit〉, 거쉬인(George Gershwin)의 〈랩소디 인 블루〉, 말러(Gustav Mahler)의 〈천인교향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비틀즈(The Beatles)의 〈Yesterday〉, 비발디(Antonio

Vivaldi)의 〈사계〉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음악과 가수 또는 작곡가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한 경우는 1로, '모른다'의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영화취향은 영화와 감독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대중적인 영화와 예술영화로 구성하였다. 박찬욱의 〈올드보이〉, 양익준의 〈똥파리〉, 왕가위(王家卫)의 〈화양연화〉, 베송(Luc Besson)의 〈제5원소〉, 카메론(James Cameron)의 〈타이타닉〉, 교양적인 영화로는 멘데스(Sam Mendes)의 〈아메리칸뷰티〉, 무어(Michael Moore)의 〈화씨 911〉, 홍상수의 〈잘알지도 못하면서〉, 파스빈더(Rainer Werner Fassbinder)의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김기덕의 〈시간〉, 알랜(Woody Allen)의 〈돈을 갖고 튀어라〉, 타르코프스키(Andrei Tarkovsky)의 〈향수〉 등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영화감독과 영화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한 경우는 1로, '모른다'의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2. 매개변인

매개변인으로는 **언론취향**, **교육인식**, **도서취향**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신문은 개인들이 세계에 대해서는 갖는 표상을 결정짓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특히 신문은 시간 속에서 언어적 선이해가 우리 사회에 고착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며, 개인들이 공식적 정치적 표현을 습득하고 발현하도록 만든다는 가설에 의해서 언론취향을 매개 변수로 선택하였다. 사례조사로는 응답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조사하였다. 신문구독의 경우 보수(『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1점으로, 중도(『한겨레신문』)는 2점으로, 진보(『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는 3점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임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인식은 개인의 심리상태와 공적 영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식견이 없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과 논쟁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독특한 언어화의 과정이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자식들의 교육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것이 정치적 가치관 형성과 정치적 표현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하여 매개변수로 선택했다. 질문항목으로는 1)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스펙)이 중요하다, 2) 의무교육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하였다. 1)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인식이 진보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도서취향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들의 소비취향 중에서 언어화의 영역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매개변수로 선택했다. 특히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조사해 보면 각 시대마다 뚜렷하게 도서구입 행태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10] 이것이 한국의 정치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여 매개변수로 선택했다. 구체적인 질문항목으로는 조사응답자들이 그동안 읽었던 도서 종류들을 조사하여 대중적인 것(추리모험소설, 만화 및 잡지, 취미여행관련 등)과 교양적인 것(현대작가작품, 고전작품, 기행탐험기, 시집, 건강관련, 자기계발서 등), 전문적인 것(역사, 과학, 정치, 철학, 사회과학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중적' 1점, '교양적' 2점, '전문적' 3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책읽기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정치의식에 관한 질문으로 1) 체제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 2) 통일은 민족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3) 한반도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오늘날 경제 현실에서 가장 큰 정부의 임무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5) 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6)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7) 정당한 목적을 가진 시위라도 사회규범을 해치면 규제해야 한다, 8)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9)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10)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등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3), 4), 6), 7)항은 역코딩하여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의식이 진보적인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의식 10개 문항의 신뢰도는 크롬바하 알파(cronbach's α)값이 0.501로 나타났다.

---

10) 1980년대는 정치비평서, 사회적 비판의식이 담긴 소설 등이 베스트셀러였고, 1990년대는 토플 수험서, 투자관련 서적 등이 베스트셀러였으며, 2000년대는 자기계발서, 성공학 서적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교보문고』 홈페이지).

4. 조사결과: 도표에 대한 분석

세대별 소비취향과 언어화, 정치의식의 관계

주요 변수 간 관계를 측정하는 상관관계분석이 매개효과 검증에 선행되어야 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취향, 언어화, 정치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각 변수들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취향과 언론취향, 교육인식, 도서취향이 정치의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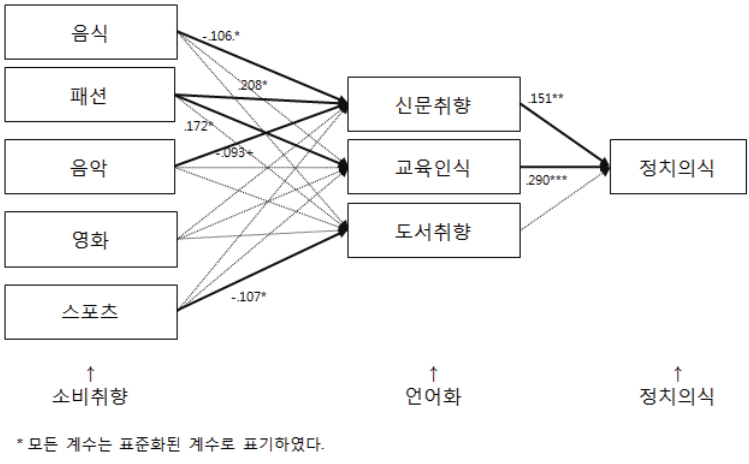
우선 〈그림 2〉에서 실선은 상호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점선은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매개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소비취향과 언어화의 관계가 유의하고, 언어화와 정치의식의 관계가 유의하고 소비취향과 언어화를 독립변수로 했을 때 소비취향과 정치의식의 관계가 제로이거나 유의하지 않은 경우 언어화가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소비취향에 관한 것으로 음식, 패션, 음악, 영화, 스포츠이며 언어화에 해당하는 것은 신문취향, 교육인식, 도서취향이다. 그리고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정치현안에 대한 의식이다.

우선 20대의 경우를 보자. 패션취향은 '심플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이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신문취향이 진보적인 경향을 띤다. 음악취향은 '국내음악(라구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내가만일, 물좀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신문취향에서 보수적인 경향을 띠었다. 음식취향은 신문취향에 영향을 미쳤지만, 영화

〈표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음식	패션	음악	영화	스포츠	언론	교육	도서	정치
음식	1								
패션	.102**	1							
음악	.102**	-.058+	1						
영화	.039	.015	.299***	1					
스포츠	.247***	.003	.025	.085*	1				
언론	.074*	-.051	.166**	.002	.055	1			
교육	.059+	-.055+	.238***	.070*	.034	.014	1		
도서	.018	-.047	.061+	.068*	-.019	-.034	.064+	1	
정치	.078*	-.008	.133***	.392***	.054	.042	.404***	.097**	1

*Pearson 상관계수, +p<.1, *p<.05, ** p<.01, *** p<.001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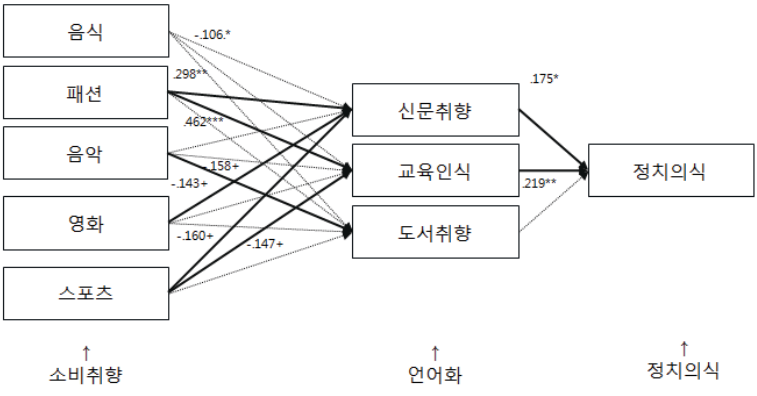


〈그림 2〉 20대의 소비취향과 정치의식 관계에서 신문취향, 교육인식, 도서취향의 매개효과

취향은 신문취향과 교육인식, 도서취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스포츠취향은 '고가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교양도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향과 정치의식 간의 관계에서 음식취향과 패션취향은 신문취향과 교육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취향과 정치의식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소비취향과 언어화의 관계에서 패션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본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 사회에서 남을 의식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부산은 대도시 서울과 농촌마을의 중간 단계에 있는 지방 도시로서 중앙에 대한 선망과 농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적 효과가 자주 등장하는 지역인데, 이러한 심리효과가 패션에서 잘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내음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문취향에서 보수적인 이유는 국외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이것이 정치의식에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이나 영화가 언어화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고가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특히 도서취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고가의 스포츠 취향이나 도서취향이 모두 경제적 부를 과시하기 위한 구별짓기 효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어화와 정치의식의 관계에서 신문취향과 교육인식은 정치의식에 영향을 주지만, 도서취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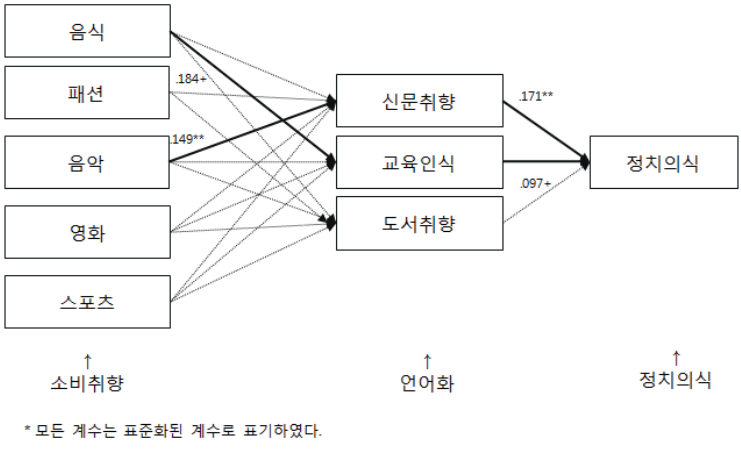


〈그림 3〉 30~40대의 소비취향과 정치의식 관계에서 신문취향, 교육인식, 도서취향의 매개효과

과 정치의식 간에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신문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자리를 잡아 왔으며, 교육인식은 젊은 세대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활이나 직장취직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정치의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서취향과 정치의식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도서의 선택이 유행이나 광고에 의해서 의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아직도 20대에서 자신의 독특한 취향이 자리 잡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20대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30~40대의 성향을 보자. 소비취향과 언어화의 관계에서는 음식취향이 신문취향, 교육인식, 도서취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패션취향에서는 '유행과 개성'을 선호하는 사람이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교육인식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취향에서 '국내외 음악(하여가, 소녀시대, yesterday, 사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문취향에서 진보적인 반면, 스포츠취향에서는 신문취향, 교육인식, 도서취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패션과 음악이 신문취향과 교육인식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취향은 정치의식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소비취향과 언어화의 관계에서 30대와 40대 역시 패션취향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경



〈그림 4〉 50대의 소비취향과 정치의식 관계에서 신문취향, 교육인식, 도서취향의 매개효과

향이 강하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언어화와 정치의식의 관계에서는 신문이 교육인식 보다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데, 그 이유는 20대에 비하여 30~40대가 세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신문에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의 젊은 시절에는 신문이야말로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50대를 살펴보자. 소비취향과 언어화의 관계에서 음식취향은 신문취향, 교육인식, 도서취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패션취향은 '실용적'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이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신문취향이 진보적이었다. 교육인식도 높으나 도서취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음악취향은 도서취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났다. '국내외 음악(하여가, 소녀시대, yesterday, 사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교양도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영화취향은 '올드보이, 똥파리, 화양연화, 제5원소, 화씨 911'을 선호하는 사람이 신문취향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스포츠취향에서는 '고가의 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신문취향에서는 보수적이고, 교육인식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언어화와 정치의식의 관계에서 패션, 음악, 영화, 스포츠에서 신문취향과 교육인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도서취향은 정치의식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매개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50대 이상의 분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비취향과 언어화의 관계에서 영화와 스포츠가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고가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신문취향은 보수적이고, 교육인식도 보수적이다. 또 50대에서는 매개효과로는 교육인식이 중요하다. 다른 세

대에 비교하여 50대 이상에서 스포츠가 중요한 영향을 띠는 이유는 이 세대에서 스포츠의 형태가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고가의 스포츠와 신문취향의 보수성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부유층이 신문취향에서 보수적일 것이라는 상식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한편 언어화와 정치의식이의 관계에서 교육인식이 정치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50대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세대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대학을 입학하거나 취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것이 정치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패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심플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클래식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신문취향이 진보적이었다. 한편 50대에서만 유일하게 스포츠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40대까지 패션이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면, 50대 이후에는 스포츠가 그 역할을 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가스포츠는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주는 특별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골프가 그렇다. 즉, 50대에서는 스포츠가 구별짓기 효과를 발휘하는 변수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웰빙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구별짓기 효과를 만들어 내는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전체 세대에서 도서취향의 매개효과가 한 번도 없었던 반면, 신문취향의 매개효과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한국에서 책을 선택하는 독자들의 취향이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대부분 광고에 의해서 조절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신문의 매개 효과가 강한 것은 부산을 비롯한 한국 사회에서 신문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아직도 큰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특히 보수신문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음식취향에서는 칼로리를 적게 고려하는 사람이 신문취향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였고, 이것이 정치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취향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의 정치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보수적 취향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은 영향이 없다. 그런데 칼로리를 고려하는 계급이 부유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신흥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음식을 통해서 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음식과 같은 미시적인 취향의 변화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에서는 국내음악만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때 그 영향이 부(−)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신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음악

에 대한 선호가 보수적인 신문취향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민족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전통적인 한국 가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국외음악이나 재즈와 같은 새로운 장르에 적응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며, 이것이 세계정세의 변화나 한국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 비교적 둔감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IV. 요약 및 결론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동안 한국의 정치이론은 바람직한 정치제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반면, 개인들의 사회화과정(필자는 이것을 '마음의 정치화과정'이라고 부르고 싶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따라서 한국정치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제도와 마음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11] 이것이 생활정치의 시작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두 영역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의 소비생활의 영역/언어화의 영역/정치영역으로 사회공간을 분류하고 세 영역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인 통계방식으로 검증해 보았다.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대별로 소비취향과 언어화 과정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12] 언어화의 요인들이

11) 이것이 이른바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이 만들어지는 핵심과정이다. 그런데 자본의 축적형식/정치권력의 지배방식/개인 정체성의 변화를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연구해 볼 수 있다. 이것이 후기 푸코가 통치성(GOUVERNEMENTALITE)라는 개념으로 서유럽 사회를 분석했던 방식이다. 즉 푸코에 따르면 국가권력은 제도라기보다는 시장과 개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들의 총합이며, 이러한 전략들은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한다. 이에 대해서는 밀러와 로즈(Miller and Rose 2008), 딘(Dean 1999; 2007), 딘과 힌데스(Dean and Hindess 1998), 엘던(Elden 2007)을 참조할 것. 또 한국적 상황에서 통치성의 변화에 따른 주체형성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정일준(2009)을 참조할 것.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활용하여 국가전략을 연구한 논문들은 국가권력/시민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접근법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따라서 통치술의 영향이 개인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사례가 볼 수 있다.

12) 이러한 실증연구는 서울, 광주, 청주와 같은 지방의 대표적 소도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소위 정치적 지역주의가 어떻게 개인들의 의식에 자리 잡게 되는가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 탈 주민, 중국의 동포들에게 이러한 실증연구를 적용한다면 남북의 대치

정치인식을 만들어 내는 매개효과에도 각각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상품이나 여가생활을 통해서 자본이 개인을 지배하는 방식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또 새로운 사회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운동과 같이 소비자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 소비영역, 여가의 영역, 언어화의 영역을 분류하여 각 영역에 부합하는 문화운동이 전개되어야 개혁운동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사적 영역의 다양한 활동에서 길들여진 취향과 언어습관을 통해서 정체성을 취득하며, 이것이 정치적 가치관으로 표현될 때 학자들은 그 실체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적영역의 정치화과정이 오늘날 한국정치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것은 제도적 권력과 개인의 심리적 수준을 포함한다.

투고일 2013년 4월 15일
심사일 2013년 4월 29일
게재확정일 2013년 5월 9일

참고문헌

김정로. 2008.『산업사회의 구조변동과 생활양식분석』. 서울: 백산서당.
김태형. 2010.『불안증폭사회』. 서울: 위즈덤하우스.
김현숙. 2004.『영상산업의 세계체제』. 서울: 현실문화연구.
박은홍. 2000. "구조조정과 민주주의: 이론과 경험."『한국정치학회보』34집 34호, 359-375.
백상창. 1999.『정신분석 정치학』. 서울: 한국사회병리연구소.
부산시청. 2009.『부산의 사회지표』. 부산시청.
이정복 편. 2009.『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임혁백. 1998.『시장, 국가, 민주주의』. 파주: 나남.
송호근. 2006.『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장미혜. 2001. "소비양식에 미치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상대적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상태(구조)가 개인들의 취향(미시)에 어떤 대립구조를 만들어 놓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의 주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조사연구를 해 본다면 통일 후 남북의 대립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통합정책의 방향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일준. 2009. “통치성을 통해 본 한국현대사: 87년 체제론 비판과 한국의 사회구성성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집 1호, 89-117.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서울: 당대.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_____.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 변형과 헤게모니』. 서울: 후마니타스.

_____. 2010. 『민중에서 시민으로』. 파주: 돌베개.

최봉영. 2000. 『주체와 욕망』. 파주: 사계절.

황상민. 2005.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파주: 김영사.

_____. 2011. 『한국인의 심리코드』. 서울: 추수밭.

홍성민. 2011. 『문화정치학 서설: 한국 진보정치의 새로운 모색』. 파주: 나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노동자 문화 실태 조사보고서』.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보문고 홈페이지 http://www.kyobobook.co.kr (검색일: 2012.06.23.)

Amstrong, C. K., Eds. 2002.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State.* Londn: Routeldeg.

Bella, Rand 저. 김명숙 역. 2001. 『미국인의 사고와 관습: 개인주의와 책임감』. 파주: 나남.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Paris: Minuit.

_____. 1982. *Ce que parler veut dire.* Paris: Fayard.

_____. 2005. “The mystery of Ministry: from particular wills to the general will.” In Wacquant, L., ed. *Pierre Bourdieu and Democratic Politics.* London: Polity Press.

Canclini, N. G. 2001 *Consumer and citize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ohen, L. J. and Arato, A.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assachusett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ean, M. 1999.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London: Sage.

_____. 2007. *Governing societies: Political Perspective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 London: McGrewhill.

Dean, M. and B. Hindess. 1998. *Governing Australia: Studies in Contemporary rationalities of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wling, William 저. 곽원석 역. 2000. 『정치적 무의식을 위한 서설』. 서울: 월인.

Edwards, T. 2000. *Contradictions of consumption: concepts, practices and politics in consumer socie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Elden, S. 2007. “Rethinking Governmentality.” *Political Geography* 26, 29-33.

Foucault, M. 1982. *L’histoire de la sexualite.* Paris: Gallimard.

Haggard, S and R.R. Kaufman 1992. *The Politics of Economic Adjustmen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ane, John. 199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New York: Verso.

Lakoff, George 저. 유나영 역. 2006.『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미국의 진보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가?』. 서울: 삼인.

Martin, F., ed. 2003. *Everyday Culture.* NewYork; Edward Arnold Publishers Ltd.

Miller, P. and N. Rose. 2008. *Governing the present.* London: Polity Press.

Postrel, V. 2003. *Substance of style.* NewYork ; Harper Collins Publishers.

Przeworski, Adam 저. 박동 이종선 역. 1999.『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와 경제』. 서울: 일신사.

_____ 저. 임혁백. 윤성학 역. 2010.『민주주의와 시장』. 파주: 한울.

Ricoeur, P. 1969. *Le conflit des interprétation.* Paris: Seuil.

_____. 1976. *Métaphore vive.* Paris: Seuil.

_____. 1983. *Temps et Recit.* Paris: MinuitI.

_____. 1986. *Du text à l'action.* Paris: Seuil.

_____. 1990 *Soi-Même comme un autre.* Paris: Seuil.

Shiller, H. I. 1989 *Culture.* Oxford; Inc: The Corporate Takeover of public Expression Oxford University Press.

Steinert, H. 2003 *Culture Industry.* NewYork; Polity Press.

Tomlinson, John 저. 강대인 역. 1994.『문화제국주의』. 파주: 나남.

_____ 저. 김승현 . 정영희 역. 2004.『세계화와 문화』. 파주: 나남.

Trend, David 저. 고동현 . 양지현 역. 2001.『문화민주주의』. 파주: 한울.

Veblen, T. 1934.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an economic study of institution.* New York: Modern library.

Western, Drew 저. 뉴스위크한국편집팀 역. 2007.『감성의 정치학』. 서울: 중앙북스.

부록

설문지 질문 내용

〈음식〉

1. 귀하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kcal)를 얼마나 고려하십니까?
   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②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③ 조금 고려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많이 고려한다.

〈패션〉

2. 귀하가 좋아하는 옷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옷 ② 유행에 뒤지지 않으면서 자기 개성에 어울리는 옷
   ③ 심플하고 단정한 옷 ④ 입어서 편안한 옷
   ⑤ 기타( )

〈스포츠〉

3. 귀하께서 평소에 직접 즐기는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1) 축구	(2) 농구	(3) 야구	(4) 당구
(5) 탁구	(6) 테니스	(7) 수영	(8) 에어로빅
(9) 조깅	(10) 헬스	(11) 무술(기체조)	(12) 골프
(13) 인라인스케이트 또는 스케이트 보드		(14) 낚시	(15) 등산
(16) 여행	(17) 패러글라이딩	(18) 스킨스쿠버	(19) 암벽등반
(20) 스키	(21) 볼링		(22) 기타 ( )
(23) 없다			

〈도서〉

4. 귀하는 지난 세월동안 어떤 종류의 책을 주로 읽으셨습니까? 세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① 추리소설·모험소설 ② 연애소설 ③ 현대작가의 작품 ④ 고전작품
⑤ 기행기 · 탐험기 ⑥ 역사이야기 ⑦ 과학관련 ⑧ 시집
⑨ 정치관련 ⑩ 철학관련 ⑪ 만화 및 잡지 ⑫ 취미, 여행관련
⑬ 건강관련 ⑭ 사회과학 ⑮ 자기계발서 ⑯ 기타 ( )

〈음악〉

5. 다음 작품 중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작품의 가수(작곡가)를 〈보기〉에서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음악명	가수 또는 작곡가
1)	라구요	
2)	돌아와요 부산항에	
3)	내가 만일	
4)	물 좀 주소	
5)	하여가	
6)	소녀시대	
7)	Yesterday	
8)	Smells like teen spirit	
9)	Like a rolling stones	
10)	천인 교향곡	
11)	랩소디 인 블부	
12)	사계	

〈보기〉

① 잘 모름	② 김민기	③ 원더걸스	④ 바하	⑤ 비틀즈	⑥ 강산에
⑦ 서태지와아이들	⑧ 너바나	⑨ 비발디	⑩ 소녀시대	⑪ 안치환	⑫ 비지스
⑬ 윤도현	⑭ 조지 거쉬인	⑮ 밥딜런	⑯ 조용필	⑰ 말러	⑱ 한대수

〈영화〉

6. 다음 영화 중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작품의 감독을 〈보기〉에서 선택하여 답해주십시오.

	영화명	감독
1)	올드보이	
2)	똥파리	
3)	향수	
4)	화양영화	
5)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6)	제5원소	
7)	잘 알지도 못하면서	
8)	시간	
9)	아메리칸 뷰티	
10)	화씨 911	
11)	타이타닉	
12)	돈을 갖고 튀어라	

〈보기〉

① 잘 모름	② 홍상수	③ 제임스 카메룬	④ 박찬욱	⑤ 양익준
⑥ 봉준호	⑦ 뤽 베송	⑧ 임순례	⑨ 펠리니	⑩ 김기덕
⑪ 조지 루카스	⑫ 우디 알랜	⑬ 왕가위	⑭ 마이클 무어	⑮ 타르코프스키
⑯ 샘 멘데스	⑰ 라이너 베르너 파스핀더	⑱ 장이모		

〈신문〉

7. 귀하께서 주로 보시는 신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① 조선일보 ② 중앙일보 ③ 동아일보 ④ 한겨레신문

⑤ 경향신문 ⑥ 부산일보 혹은 국제신문 ⑦ 오마이뉴스 ⑧ 프레시안

⑨ 무가지(메트로, 포커스 등) ⑩ 기타( )

〈정치의식, 교육인식〉

8.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잘 맞는다고 느끼시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체제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	1	2	3	4
2)	오늘날 경제 현실에서 가장 큰 정부의 임무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1	2	3	4
3)	학부모와 학생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4)	정당한 목적을 가진 시위라도 사회규범을 해치면 규제해야 한다	1	2	3	4
5)	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1	2	3	4
6)	한반도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2	3	4
7)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1	2	3	4
8)	통일은 민족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1	2	3	4
9)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스펙)이 중요하다	1	2	3	4
10)	의무교육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1	2	3	4
11)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1	2	3	4
12)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1	2	3	4
13)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1	2	3	4

* 교육인식 3, 9, 10

* 정치인식; 1, 2, 4, 5, 6, 7, 8, 11, 12, 13

9. 귀하의 성별은? ⑴ 남 ⑵ 여

10. 귀하의 나이는? 만 세

11.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별거 ⑤ 이혼 ⑥ 기타( )

12. 귀하와 귀하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를 참조하여 답해 주십시오.
본인 : ( ) 아버지 : ( ) 어머니 : ( )

13. 귀댁의 월평균 가계소득(임금, 수당, 배당금, 이자 등 포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199만 원 ③ 200~299만 원 ④ 300~399만 원
⑤ 400~499만 원 ⑥ 500~599만 원 ⑦ 600만 원 이상

ABSTRACT

Lifestyle and Korean Politics

SeongMin Hong | Dong-A University

There is a critical view among Korean scholars that Korean politics has become conservative after democracy was achieved in 1987. That is, vot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became a 'one man-one vote' process. The election process for the local Korean government by the people has been statutory, and appointing party leaders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has become a reality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We can say that Korean politics has been improved if we compare our current political situation with Korean politics before 1987. Although the legal proceedings for democracy have definitely been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ironically, democracy seems to be rather regressing than moving forward. Why has this happened? Why has politics become conservative despite the fact that Korea has a formal democracy? Explaining these problems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s. Furthermore, such an understanding offers the opportunity to reflect a political vision of Korean society.

There are two ways to explain why Korean politics has become conservative. One is an institutional approach and the other is a psychological approach. But both have a theoretical limit. To overcome the academic shortcomings from the two different theoretical views mentioned above, I suggest the concept of *lifestyle*. Furthermore, the author insists that the concept of *lifestyle* needs to be subdivided and analyzed into two domains. The first is consumption tastes and the second is verbalization. Verbalization is when cultural domination enters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state.

There are two ways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lifestyle and the political realm if we divide lifestyle into taste and language. The first way employ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 direct survey of the text about consumption, books or newspapers. The second

way is to classify individuals' identities through a questionnaire. The former is usually performed by semiotics or content analysis, while the latter is achieved by conducting a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The author adopted the latter to search for a function of lifestyle. In other words, the author tried to prove the existence of lifestyle which connects individuals' psychological states to a systematic level through objective data obtained by a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Keywords: Conservative Politics, lifestyle, Consumption-Taste, Verbalisation, Culture Politics